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총무	첫째 토요일 오전 11시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알 림

- 7월호부터 매일 미사 책 판매가격이 소(소) 1,500원, 대(대)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8월부터 유아세례 및 태중의 아기 축복 일정 변경 안내
 - 유아세례 :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1시
 - 태중아기 축복 :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시	장소
1Cu.	7/10(일), 12시	강당
2Cu.	7/10(일), 13시30분	강당
3Cu.	7/10(일), 12시	식당
제대회 회합	7/12(화), 11시	5교실
임원 모임	7/13(수), 20시	식당
울뜨레아 모임	7/17(일), 11시 40분	강당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	두 번째 목요일, 19시 40분	1교실

● 청소년부

- 가족신앙학교
 - 대상자 : 유·초등부
 - 일시 : 7월 23일(토) ~ 24일(일)
 - 장소 : 내리 살레시오 피정 센터
 - 문의 : 권영근 엘리사벳 010-5490-5923
-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 일시 : 8월 5일(금) ~ 7일(일)
 - 장소 : 문경 다락굴
 - 문의 : 김덕리 라파엘 010-4463-4260

제 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사진 공모

- 응모 자격 : 본당 교적 신자 누구나
- 응모 주제 : 조부모와 손자녀가 꼭 함께한 행복한 모습
- 작품 규격 : 스마트폰/디지털카메라/흑백/컬러 관계없음
(용량이 클수록 좋으며 원본 파일로 신청)
- 출품 수 : 1인 최대 10점 이내
- 접수 기간 : 2022년 7월 1일(금)~7월 31일(일)
- 접수처 : 본당 사무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7/24)' 전대사 안내

-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 영성체를 하고
-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노인들을 위해' 기도
- 실천사항 택 1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 참여
 -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 다음 주일(7/1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월 시작 예정	청소	1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6월 29일 ~ 7월 5일)

교무금	11,070,000원
주일헌금	4,141,100원
교황주일 2차 헌금	1,953,200원
시설헌금	최○○30만원
감사헌금	서만심 6만원 최○○20만원 임공섭10만원
	김희영24만원 최순애10만원 양옥순 5만원
	백동순10만원 국○○10만원 오광운100만원
	전현진10만원 김○○ 5만원 김순길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7/10	구민서	오성환 김영균	윤상기 민옥경
7/17	이인옥	심재순 도현만	안상록 김명선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7/10	박형순	이운영	최창열	황태영 장인홍
7/17	오광운	장인홍	김광수	김영배 이화봉

화답송



가난한 이들을 찾아라 너희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효과적인 사랑

183. “사회적 사랑”은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편적 역동성을 지닌 애덕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애덕은 그저 공허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길을 발견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사회적 사랑은 “현대 세계의 문제들에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사회 구조들과 사회 조직, 법적 체계들을 내부로부터 쇠신할 수 있는 힘”입니다.

184. 애덕은 모든 건강하고 열린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애덕은 도덕적 책임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겨져 쉽게 무시됩니다.” 진리에 대한 헌신이 동반될 때에 애덕은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으며, 결과적으로 “우발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애덕과 진리의 밀접한 관계는 애덕의 보편성을 증진하며 “관계가 결여된 좁은 영역에 갇혀 버리지” 않게 애덕을 보존합니다. 진리가 없는 애덕은 “지식과 실천의 대화를 통하여 전 세계의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계획과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맙니다.” 진리가 없는 감정은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열려 있는 애덕은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여유를 빼앗아 버리는 신앙주의”로부터 보호됩니다.

185. 애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이 빛은 이성의 빛이며 또한 신앙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은 어떠한 형태의 상대주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학문들의 발전과 공헌이 포함됩니다. 학문은 바라던 결과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과정들을 찾는 데에서 그 무엇도 대신 할 수 없는 공헌을 해 왔습니다. 사실 다른 이들의 선택이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선한 의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들과 그 민족들이 자기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